

연중 제 8 주일

기도서 356면 (A해)

제1독서 : 이사야 49, 14-15

제2독서 : 1고린 4, 1-5

복음 : 마태 6, 24-34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 33).

□ 강론



믿음을 위해서

서석기 신부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의 의미를 깊이있게 다루시며 신선하고도 충만한 시적 표현을 통해 그 의미를 매일 매일의 현실 속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질식시키는 절망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어떤 위대한 역사의 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의 생활 매 순간 순간마다 갖가지의 모양으로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우리를 따스하게 해주는 해, 땅 속에서 넘쳐 흘러와 우리의 증진을 풀어주는 물, 벌판에서 자라고 있는 채소,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뿜겨져 나가 산산조각이 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구 표면에 붙잡아 두는 만유인력의 법칙 등,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사랑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지극히 단순한 사실들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이며 우리는 바로 그 무한한 사랑의 숨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이러한 단순한 사실들이다 우리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맑은 눈으로 모든 피조물을 바라봄으로써 그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 사랑의 표지를 이해하고 그 결과 내일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그 맑은 눈은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 의지하지 않을 때야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권력, 사회적 명성, 교양, 지식, 아름다움, 재산 등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심을 질식시키고 몰아내는 그 허무한 확신들을 씻어내기 위해 오늘 주님은 우리의 어두움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예수의 말씀에는 이 허망한 확신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어떤 아이처럼 천상 아버지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맡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믿음이고 평화이고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갖가지 걱정들은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걱정은 삶을 비참하게 하고 어깨의 짐은 더욱 무겁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을 잘 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을 잘 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느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와 보다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의 평화에 대한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오롯한 믿음을 키워가도록 노력합시다. (함열 천주교회)



사람아, 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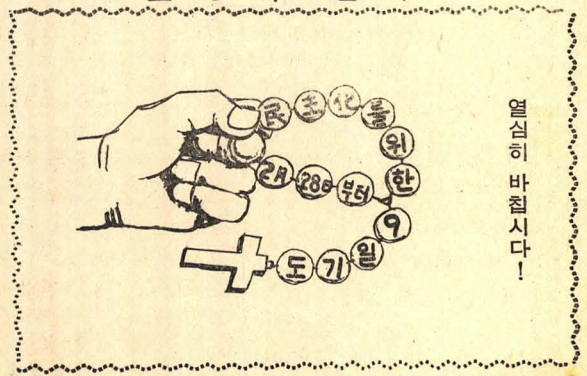
제의 수요일, 교회의 전례는 작년 이맘 때에 나누어준 성지가지들 불살라 그 재를 신자들의 이마에 발라준다. 그러면서 사제는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경고를 전해준다. 그렇다. 기고만장하고 서늘이 퍼뒀던 사람도, 그가 아무리 큰 무덤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결국 한 줌 흙으로 변하고 만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남을 쥐어뜯고 할퀴며 목을 졸라댄다. 어찌 그리도, 한 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한다는 말인가?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에故 박종철군의 49재를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된 판인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임조차 그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언제부터, 같은 동료, 그것도 억울하게 죽어간 한 젊은이의 죽음을 슬퍼할 자유마저 없어져 버렸다는 말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쓰여지는 용어들이 굉장히 전투적이다. 그 하나가 「원천봉쇄」라는 말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엇을 그리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말인가? 너무나 살벌하다. 작년 12월, 그리고 금년 2월의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면, 이제 그만해도 될 성 싶다. 길거리에서, 그것도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맞서 있는 모습, 이제는 그만두자. 이런 것은 올림픽에 도 없는 종류이다.

당국은 걸핏하면 광주사태와 인천집회를 들먹이며 걱정의 뜻을 밝힌다. 그런데 지난 2월초의 집회를 보니, 이제는 그런 걱정은 한 박자 뒤로 미루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소위 재야도 이번 49재를 조용히 끝내려는 모양이다. 무언(無言)의 침묵시위로 말이다. 말없이 걷는 자유마저도 빼앗아갈 셈인가!

숲정이 산책



열심히 바칩시다!

● 고문추방·민주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

故 박종철군 49재 추도미사

일시 : 3월 3일 저녁 7시30분

장소 : 교 구 내 전 본 당

성서교실 ⑦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義)를 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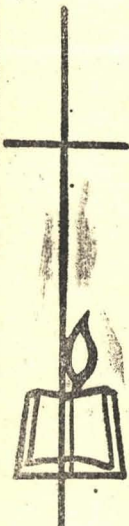
(마태 6:33).

마태오 복음 6장 33절은 25~32절에서 언급한 생활문제의 절정이고, 34절은 전체 내용(마태 6:25~34)의 요약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33~34절은 이 부분(25~34절)의 결어이다. 25~32절의 내용은 의식주 문제를 놓고, 걱정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고(戒告)임에 반(反)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義)를 구하라는 내용이다.

「먼저」라는 말은 「프로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것보다 먼저」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라는 뜻이다. 루가는 여기서 「플렌」(오히려)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이 말마디는 루가의 애용어인데, 「프로톤」보다 강(強)한 뜻이 들어 있다. 물론 예수도 음식문제를 놓고,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 「주의 기도」 속에도 그것이 나온다. 그러나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義)롭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義)」를 말한다. 「하나님의 의(義)」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달성되어지는 의(義)가 아닌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십시오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게 사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롬 3:26)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말한 소위 인간의 「자기의(義)」(롬 10:3)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리사이파 사람의 의(義)가 아니고(마태 5:20),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의(義)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의(義)롭게 여기시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資格)을 말하는 것이 곧 의(義)인 것이다.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곁들여 받는다」(프로스티테미)는 여기서 같은 종류의 것을 첨부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마르 4:24), 틀린 종류의 것을 곁들여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義)를 구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부수적으로 자연 따라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생활문제는 자연 해결되는 것이다.



□ 1분 명상

- “삶의 기쁨은
- 에밀바이스처럼
- 바위 틈을 뚫고
- “나와야 얻는 것”
- P. 세메리아

명동피부과의원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외과전문의

소 흥 영(오 한)
유 인 경(유리안나)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전주시청 앞)

병원 ③ 3668
자택 ③ 8120

효자동 서부시장 2층

쌍 방 을 코너

(방지거네 집)

김 영 자
(마리아 막달레나)

전화 83-5768
6-8019

성 훈 치 과

관동도로 사거리
(전일관광 2층)

☎ 82-9900

최 성 훈(빈첸시오)



교 구 소 식

1. 50주년 삼일위원회 : 3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교구청
 2. 젊은이 형제의 모임 : 일시-3월 1일 오전 11시~5시, 장소-고산 대아리공소
 3.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2일(월) 7시10분, 장소-가톨릭센터 3층
 4. 가톨릭 사회복지후원회 월례미사(사랑의 다리 회원)
미사시간-2일(화) 오전 10시30분 박정일 주교님 집전, 장소-가톨릭 사회복지회관
 5. 베소라성서 초급반 개설(모세 5경) : 2일(매 월요일 오후 2시~4시)
장소-군산 오룡동성당, 강사-김보나 수녀, 회비-3천원
 6. 베소라성서 초급반 개설(모세 5경) : 5일(매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이리 창인동성당, 강사-김보나 수녀, 회비-매월 3천원
 7.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일시-5일(목), 장소-덕진천주교회
 8. 약사회 총회 : 일시-6일 11시, 장소-가톨릭센터(가톨릭신자 약사 꼭 참석바람)
 9. 노동문제(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 : 연제-10일(화) 오전 10시
어디서-이리 주현동천주교회, 누가-가톨릭 노동청년회 전주교구 연합회
누구와-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10. 제10기 영세식 : 1일(일) 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강당, 주례-박정일 주교
 11. 제11기 예비신자 교리반 개강 : 6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센터 3층 회의실
 12. 신학생·성소자 부모님 피정 : 7일(토) 오후 4시~8일(일) 오후 4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회비-한분(6천원)·두분(1만원)
준비물-미사도구·필기도구·세면도구
 13. 테클라 모임 : 1일 오후 2시, 장소-성바오로 여자수도회(성바오로 서원)
 14. 전주교구 교리교사 월례회 : 3일(화) 6시, 안건-신임교사 칩묵, 장소-가톨릭센터
- 축! 영명 : 성 가시미로(4일)-오현택 신부 축하합니다

10만인 성지순례

1코스 : 숲정이→치명자산				2코스 : 여산→천호					
일	요일	담	당	신	부	담	당	신	부
1	일	김	환	철	신부				
7	토	이	상	섭	신부	김	의	철	신부
8	일	법	석	규	신부				

[중·고등학생 여러분께 알립니다]

교구 홍보국에서는 금번에 교구 청소년(중·고생)들을 위한 주보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주보의 제호(이름)를 공모합니다. 관계연서에 정확한 주소와 주보 이름 공모라고 써 주시고 갖고 싶은 이름을 적어 보내 주시면 채택된 학생에게 소정의 상품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보낼 곳 : [520] 전주우체국 사서함 32호 전주교구청 홍보국

♣ 잠깐!

☆ 걷는다는 것

누구나 늙어 지나면 아장아장 머리를 하늘로 두고 걷기 시작한다. 엄마의 손을 붙잡고 배어놓기 시작한 걸음마의 연습을 졸업하고나서부터 혼자서 걷기 시작하는 아가의 얼굴을 바라보면 마냥 흐뭇하고 대견스럽다. 이렇듯 걷는다는 것은 인간이 행해야 할 필수과정의 모습이고 또 평생을 걸으며 생활해야 하는 숙명파도 같은 조건으로 벗어날 것도 인간이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불의의 고문으로 타의에 의해 걷기를 갑자기 멈추고 그만 이 지상의 나그네 길을 떠나 천상고향길에 귀의해 버렸다.

어수선한 세상,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건 인생 여정길에서 이제 젊음의 씩씩한 걸음을 볼 수 없는 애석함을 달래기 위해서 뜻을 둔 이들이 3월 3일 오후 5시~6시 객사 앞에서부터 관동로를 중심으로 고문추방·민주와 평화를 위한 걷기운동을 한다. 흰옷, 하얀 리본, 하얀 마스크, 하얀 모자를 쓰고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걷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것도 땀과 지향을 두고 칩묵 속에서 걷는 것은. 머우기 기도의 마음으로 행할 때는 더욱 가치로운 것이다.

요심이 (708) 김병오

지금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나
살수있는 세상이고

억지소리 잘하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이고

남의 욕이나
잘하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이나...

남새야 더추워져라!
이불 들러쓰고 세금벌
겨정이나 할란다

베소라성서 강의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 10:24~33)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사 : 김정원 신부
회비 : 매주 1,500원

모집 공고
1. 모집인원 : 남 ○○명
여 ○○명
2. 응모자격 : 고졸 이상
(남자 병역의무 필한자)
3.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 2통
4. 제출일자 : 87.3.5까지
등 양 섭 유
☎ 3-9340

내과 전문의
위 상 양 내 과 의 원
전주시 교사동 2가 1-13
(원주농협·우신호텔 앞)
☎ 병원 4-1225 자택 75-0034
위상양(프란치스코) 김병희(클라라)

대入종합반 모집
문과 4반·이과 5반(선별별 반편성)
학습분위기가 가장 좋은 학원!
성적이 가장 좋은 학원!
개강 : 3월 3일(火)
매일 **한** **샘** **학** **원**
전주 74-7424(시청 옆)
이사 : 정연순(아가다)
강사 : 박노진(안토니오), 김종대(가브리엘),
이숙현(크리스티나) '이영근(시몬)

(노총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이재 후
수·사 2-7032 사목회장 노인 석

1. 관할구역 분리: 본당의 제단체에 소속된 교우는 해당 본당으로 이적하여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2. 재의 수요일 안내: (1) 금육과 단식제-사순절 동안 매일 한주먹의 쌀과 금육과 단식의 뭇을 모아 봉헌합니다. (2) 재 축성예식-4일 저녁미사 중에, 각 가정의 성지가지를 3일까지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3. 가정방문: 인후 6구역-3일 오후 2시부터; 중노2가 10구역-4일 오전 9시부터, 인후 13구역-5·6일 오전 9시부터, 해당 구역장님을 대가하세요
 4. 사순절동안 공동 십자가의길: 6일부터 매주 금 저녁 미사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사제양성 후원 저금통과 성미주머니: 각 구역장님을께서는 사무실에서 저금통과 주머니를 가져가세요
 6. 모임안내: 본당 울트래아-오늘 저녁 7시 30분 성가대 율레회-3일 어머니미사 후, 금요성심회-3일 어머니미사 후, 금요기도회-매주 금 오후 3시
 7. 성체강복: 6일 저녁미사 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 공소 순회미사: 1일 오후 3시-다리리공소 8일 오후 3시-왕정리공소
 9. 다음주 전례담당
공식미사: 해설-은경순, 독서-봉헌-김진희·김경미
신자기도-배기창·주순자, 헌금봉헌-안재홍·허창균
저녁미사: 해설-이양주, 독서-봉헌-황병호·박혜경
신자기도-유창원·윤민자, 정장을 하고 참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634,830원 교무금: 652,500원
신축금: 445,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성원
수녀원

1. 미사시간 변경: 금주부터, 저녁미사-7시 30분
 2. 청년회 율레회: 1일 저녁미사 후(월 첫째주)
 3. 중·고신입생 환영식: 1일 오전 9시, 학생미사 후
 4. 재의 수요일: 4일 저녁 7시 30분 미사(단식·금육)
어머니미사 없음, 미사후 십자가의길 기도
십자가의 길-사순절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5. 제대회: 5일 오전 10시 미사
 6. 어머니성가대 율레회: 6일 오전 11시
 7. 첫칠레 7: 7일 저녁미사 후, 성체강복
 8. 주일학교 개화: 7일 오후 3시-교리, 4시-미사
 9. 대학생회 신입생 환영회: 8일 15시
 10. 꾸리아 회합: 8일 오후 2시
 11. 중·고학생회 교리시작: 8일 9시 학생미사 후
 12. 춘계 가정방문: 3일-교사동 1반 (정마리테사) 오전 10시, 4일-중양동 1·2반(정누지아, 장세시리아) 오전 10시, 5일-다가동 1·2반(강마리아, 조마리아) 오후 2시, 6일-다가동 3반(김보나) 오후 2시
 13. 부녀회 임원개편: 회장-조마리아, 부회장-최가타리나, 총무-안가타리나, 서기-허가타리나
 14. 사순절 저금통: 신학생 후원, 사무실에서 수령바람
 15. 금주 청소: 월-사도의 모후pr, 토-자비의 모후pr
 16.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이승열 ②강주호
봉헌-김수영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정운주, 독서-①조성호 ②오장수
봉헌-유태수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95,390원 교무금: 754,81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상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정우

1. 재의 수요일: 4일, 단식과 금육
 2. 성지가지: 작년에 가져가신 성지가지를 화요일까지 가져다 주세요
 3. 성지순례: 7일 오후 2시, 해설학교 순정이 앞으로 모여 주세요. 본당신부님과 함께 성지순례 함
 4. 성체강복: 5일 저녁미사 후
 5.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제대회: 5일 성체강복 후
 7. 감사: 방학동안 수고해주신 두분 학사님께 감사드리며 두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청년 회정에 도와주시분, 서정길-밀감 1상자
 8. 매월 첫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
- 지난주 봉헌금: 145,790원 교무금: 90,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덕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환웅
수녀원 2-2276

1. 꾸리아 율레회: 오늘 오후 3시
 2. 자모회: 3일 오전 10시 30분
 3. 프란치스코 형제회: 다음주일 오후 2시
 4. 가정방문: 20반-3일 오후 1시 (반장-조귀례 ⑤5508) 21반-4일 오전 10시 (반장-이소남 ⑤5957)
 5. 봉성제: 6일 오후 2시 30분
 6. 재의 수요일: 4일 저녁 7시 미사중에 재 축성예식
 7. 예비자교리 안내: 일(성인)-공식미사 후(11시 30분) 토(중·고생)-오후 6시, 화(직장인)-저녁미사 후
 8. 감사: 중·고동학생 동계연수회 중식제공-민병석·김명용,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사랑 강-익명
 9. 금주전례: 해설-고정수, 독서-①유용산 ②민병부
봉헌-강진성 부부
- 차주전례: 해설-김배근, 독서-①강기호 ②김봉환
- 지난주 봉헌금: 323,870원 봉헌-계 16만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치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이덕근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병오
레지아 사무실 83-5085번

1. 성가정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재속 클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 30분
 3. 성체강복: 5일 저녁미사 후
 4. 유아세례: 7일 오전 11시 (토요일)
 5. 자모회·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3월부터 매월 첫 목요일에 각 동별로 성시간이 있음 5일부터 실시되니, 밖에 있는 계시관을 참고하세요
 7. 집에 있는 성지가지: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람
 8. 주일학교 교리교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안나·이요안나·이마리아나·방제마·방엘리사벳
 9. 50주년 기념현금금입입 인의신 세대: 사무실에 신입
 10. 사순절 기간동안 매일 저녁미사후 십자가의 길 있음
 11. 꾸르실리스타 영적 빨랑카: 목주기도 10만 주도경
 12. 차주전례 10번째 바침시다
아침미사: 해설-최종만, 독서-①배한수 ②최정식
8시 30분: 해설-방유경, 독서-①유공수 ②손회부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안득수 ②유기운
- 지난주 봉헌금: 884,960원 교무금: 1,130,000원
50주년 특별현금: 353,060원

(평화동)

사제관 83-8245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사목회장 김광환

1. 사목회의: 오늘 오후 8시, 사제관
 2. 재의 수요일: 3월 4일 저녁미사, 재의 예식(단식·금육) 각 가정의 성지가지 본당에 반납바람
 3. 주일학교 자모회: 3월 4일 오전 10시
 4. 성심회: 3월 4일 오후 2시
 5. 구역반장 회의: 3월 6일 오전 10시 30분
 6. 구역형제회의 날: 3월 6일 오후 8시, 1반~7반까지 각 반에서 모임 있음, 가정미사는 제1반에서 있음
 7. 대의원 회의: 3월 8일 12시, 사목회임원·각 반장·공소회장·각 신심단체장 빠짐없이 참석바람
 8. 공소미사: 3월 8일 오전 8시 30분, 으르티
 9. 금주 가정방문: 3월 3일 오전-11반·오후-12반, 4일 오전-광곡리, 5일 오전-으르티, 6일 오후-양생, 7일 오전-마우리
 10. 금주전례: 해설-박병환, 독서-①신영창 ②권학열
봉헌-강수중 부부
차주전례: 해설-문치구, 독서-①김나섭 ②한상철
봉헌-2반장 가정
- 지난주 봉헌금: 209,600원 교무금: 124,000원
자선의날 헌금: 39,51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충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정선
수녀원 2-4804

1. 사순절을 뜻있게 지냅니다
재의 수요일 미사-4일 저녁 7시 미사(성지가지 3일 까지 성당에 내주시고) 단식·금육-4일, 금육-6일
 2. 주부 성서대학 개학: 3월 4일 오전 10시
 3. 새 성가대 단장: 최윤희, 감사-김순주 단장님
 4. 모임: 오늘-로사리오 꾸리아, 차주-클라라회
- 지난주 봉헌금: 841,740원 교무금: 1,040,000원